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16.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④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그 이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17.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 ②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로는 그 자연물에 해가 된다.
- ③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
- ④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 ⑤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18. 윗글에 나타난 목적론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 ① 갈릴레이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
- ②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 ③ 베이컨과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고 비판한다.
- ④ 스피노자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주장한다.
- ⑤ 스피노자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생물학자 마이어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이론으로 창발론을 제시한다.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 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물리·화학적 법칙 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①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엠페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겠군.
- ②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물질론에 동의하겠군.
- ③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군.
- ④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겠군.
- ⑤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하겠군.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 펼쳤다. 그들은 변화에 대한 앞선 두 철학자의 견해를 받아들였지만 그 방식에는 서로 차이가 있었다. 플라톤은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현실 세계에,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파르메니데스의 견해를 이상 세계에 적용하여 이원론적 세계관을 확립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주장하는 이상 세계를 거부했다. 그는 변화의 실재에 대한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의 상반된 견해를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 세계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에서 ‘기체(基體)’와 ‘형상(形相)’이라는 개념을 통해 변화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했다. ‘기체’란 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변화의 토대를 의미한다. 그리고 ‘형상’이란 그런 토대 위에 구현되어 현실 세계에서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검은색의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변할 때 머리카락은 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기체이며, 검은색과 흰색과 같은 머리카락의 색깔이 형상에 해당한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란 현실 세계에서 실체의 기저에 깔린 머리카락이라는 기체 위에서 검은색의 형상이 흰색의 형상으로 대체되는 현상과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변화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먼저 변화를 실체적 변화와 비실체적 변화로 구분하였다. 실체적 변화란 실체의 변화 정도가 커서 기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변화를 가리킨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변화의 전체 과정을 관찰하지 않는다면 마치 애벌레 자체가 소멸하고 나비가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파르메니데스와 마찬가지로 무에서의 생성과 무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변화에서 기체가 유지된다는 것을 전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체적 변화는 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기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기체가 없이 무로부터의 생성이나 무로의 소멸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비실체적 변화에는 얼굴이 빨개지는 등의 질적 변화, 작은 풍선이 커지거나 살이 찌거나 빠지는 등의 양적 변화, 이곳에서 저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장소 변화가 있는데, 이들이 비실체적이라는 것은 실체가 전혀 또는 많이 변하지 않아서 기체가 분명하게 식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장소 변화의 경우 실체 자체는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는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전 철학자들과는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규정했다. 그는 다수의 저술 속에서 변화 자체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우주, 자연물, 인간 등의 사례에 적용할 정도로 변화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는 근대 자연 과학의 발전에 밑바탕이 되었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파르메니데스는 감각을 통해 경험한 변화를 착각으로 간주했다.
- ②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의 실재를 자연 현상을 통해 설명하였다.
- ③ 플라톤은 변화에 대한 견해를 적용하여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확립하였다.
- ④ 변화에 대한 학문적 성과를 이룬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대 자연 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 ⑤ 파르메니데스는 세계를 존재하는 것들과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로 뭉쳐 있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 17년 11월 고2 16~20번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변화라는 현상의 실재(實在) 자체에서부터 종류, 원인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문을 제기하였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 학문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먼저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그 믿음을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란 말로 표현했다. 새로운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들기 때문에 같은 강물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불꽃이 끊임없이 흔들리듯이 항상 변화하고 있는 ‘불’을 세계의 근원적 요소로 보았다. 반면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라는 현상 그 자체를 부정했다. 그는 ‘존재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식했으므로, 절대적인 무(無)에서의 생성과 절대적인 무로의 소멸과 같은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는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로 뭉쳐 있고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감각을 통해 흔히 경험하는, 변화라고 믿는 현상이 사실은 착각 또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간주했다.

이와 같이 변화라는 현상의 실재성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제시된 이후, 후대에 이르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의

17. 윗글을 읽고 변화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변화의 실체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	㉡

- ① ㉠: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파르메니데스의 견해를 이상 세계에 적용함.
- ② ㉠: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현실 세계에 적용함.
- ③ ㉡: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파르메니데스의 견해를 현실 세계에 적용함.
- ④ ㉡: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현실 세계에 적용함.
- ⑤ ㉡: 변화의 실체에 대한 파르메니데스의 견해와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이상 세계에 적용함.

18. [A]를 바탕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구분	변화 전	→	변화 후
ㄱ		→	
ㄴ		→	
ㄷ		→	

- ① ㄱ에서 변화 전의 개구리가 다른 장소에서 이동해 왔다면 그것은 비실체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 ② ㄱ에서 변화 전의 개구리의 피부색이 변화 후와 같이 바뀌었다면 색깔이라는 형상이 대체된 질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 ③ ㄴ은 실체의 변화 정도가 커서 기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식별되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 ④ ㄷ은 변화 전과 변화 후의 실체의 크기가 양적으로 증가한 비실체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 ⑤ ㄱ, ㄴ, ㄷ은 모두 변화 과정에서 기체가 실체의 기저에 깔려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9. 윗글과 <보기>를 읽은 학생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탈레스는 '물'을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그는 물이 그 본성 상 여러 가지로 변형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물들을 구성하므로,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근원적인 요소인 물 자체는 결코 변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이처럼 그 자체는 변화하지 않으면서도 세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만물의 근원을 '아르케(arche)'라고 한다. 아르케를 주장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절대적인 무에서의 생성과 절대적인 무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았다.

- ① 헤라클레이토스와 탈레스는 모두 '불'을 통해 변화를 설명하려고 하였군.
- ② 탈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인정하였군.
- ③ 파르메니데스는 탈레스와 달리 만물의 근원적 요소 그 자체는 변할 수 없다고 여겼군.
- ④ 파르메니데스와 탈레스는 모두 '물'이 다양한 형태의 사물들을 구성한다고 인식하였군.
- ⑤ 아리스토텔레스와 탈레스는 모두 절대적인 무에서의 생성과 절대적인 무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았군.

20.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큰 독수리가 날개를 펼쳤다.
- ② 그 아이는 동화책을 펼쳤다.
- ③ 무용단은 환상적인 무대를 펼쳤다.
- ④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쳤다.
- ⑤ 그는 오랫동안 독립 운동을 펼쳤다.

◆ 15년 4월 고3 B형 17~20번

[17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인들에게 무엇인가가 ‘있다/없다’라는 존재 ㉠ 여부에 대한 판단과 무엇인가가 ‘좋다/나쁘다’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 판단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있다/없다’는 양자택일의 문제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와는 다른 ㉡ 관점을 보여준다. 플라톤의 관점에는 무엇이 ‘있다/없다’라는 존재론적 판단과 무엇이 ‘좋다/나쁘다’라는 가치론적 판단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 즉 플라톤에게 존재론적으로 ‘있다/없다’는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이다.

존재와 그 존재의 가치가 일치한다면, 특정한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플라톤은 그것을 ‘있음’의 ‘정도’로 보았다. 이때 ‘있다’에는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실제성의 정도와 ‘가치 있다’라는 측면에서 완전성의 정도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더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더 완전한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덜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덜 완전한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가장 실재하는 것, 가장 완전한 것을 ‘이데아’라고 ㉢ 규정하는데 이는 현실 세계를 초월한 차원에 존재한다. 반대로 세계에 존재하는 만물인 ‘현상’은, 이데아에 비해 덜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플라톤은 현상을 만드는 창조자로 ‘데미우르고스’를 설정하고, 그 창조자가 외부의 이데아를 본으로 삼아 현상을 만든 것으로 보았는데, 플라톤은 이 과정을 ‘모방’이라고 한다. 모방을 통해 현상은 이데아의 본질을 나누어 갖게 된다. 그런데 현상은, 영원불변한 존재인 이데아의 본질을 모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다. 이데아와 현상의 관계에 대해 플라톤은 ‘관여(關與)’ 또는 ‘임재(臨在)’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했다. 이때 ‘관여’와 ‘임재’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현상이 이데아의 본질과 유사한 정도를 ‘관여’의 정도라고 하고, 현상이 이데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임재’의 정도라고 한다. 플라톤에게 중요한 것은 개개의 현상들이 이데아에 얼마나 ‘관여’하는가 또는 이데아가 개개의 현상들에 얼마나 ‘임재’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관여’ 혹은 ‘임재’의 정도가 그 사물의 존재론적이지자 동시에 가치론적 ㉣ 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여’나 ‘임재’의 정도가 높다는 것은 그 현상이 이데아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완전성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말’의 이데아가 지닌 본질 중의 하나가 빠르게 달리는 능력이라면 경주에서 빨리 달리는 말일수록 그렇지 못한 말들보다 이데아에 대한 ‘관여’나 ‘임재’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 이처럼 현상들에는 관여나 임재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난다.

존재론적 판단과 가치론적 판단을 하나로 여기는 플라톤의 ㉤ 사유 방식은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유 방식을 반영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서구의 고대와 중세의 사유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념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특정 이론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비교되는 두 대상을 제시한 후 상반된 관점에서 각각을 평가하고 있다.
- ③ 문제를 제기한 후 그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④ 특정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비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⑤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근거를 들어가며 특정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18. 윗글의 [이데아]에 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장 완전하면서 현실 세계를 초월한 차원에 존재한다.
- ② 존재론적으로 모든 현상에 비해 가장 실재하는 것이다.
- ③ 관여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물로서 영원불변한 성격을 지닌다.
- ④ 현상이 모방하는 대상이자 현상에 임재의 정도가 결정되는 기준이다.
- 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현상들을 만들어낼 때 창조자가 취하는 본이다.

19. 윗글의 ‘플라톤’과 <보기>의 ㉠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라이프니츠는 세상의 창조자인 신을 가장 완전한 존재로 보았다. 그는 신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을 창조했으며 그 존재들은 신의 형상과는 완전히 같지는 않기에 유한한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그에게 신은 모든 사물의 근거로서 무한한 존재이다.

- ① ㉠가 신이 창조한 존재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유한성은 플라톤의 ‘덜 존재한다’를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② ㉠가 말한 신은, 다른 존재들을 창조할 때 자기 외부의 형상을 본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데미우르고스’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군.
- ③ 플라톤과 ㉠는 모두, 창조자와 존재들 간의 닮은 정도에 주목하고 있군.
- ④ ㉠와 달리, 플라톤은 창조자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한한 존재로 보고 있군.
- ⑤ 플라톤과 달리, ㉠는 존재의 완전성을 정도의 문제로 파악했군.

20.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틀리거나 의심할 여지
- ② ㉡: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 ③ ㉢: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
- ④ ㉣: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 ⑤ ㉤: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따위를 행하는 인간의 이성 작용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플라톤은 최선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대상들이 지닌 성질을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대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인간 뿐만 아니라 신도 마음대로 어찌지 못하는, 그 자신만의 고유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 은 그 대상을 인식하기 위하여, 우선 ㉠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오려 내어 하나의 고정치로 확정지어야 한다. 대상의 바로 이런 고정화된 모습을 플라톤은 이데아(idea)라 부른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초기 작품에서는 '개별적 사물의 공통된 모습'으로, 원숙기의 작품에서는 '진정한 존재, 영원불변한 어떤 실체'로 규정된다. '개별적 사물의 공통된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을 예로 들어 보자.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기 위하여 학생·농부·사업가·정치가 등과 같은 특징의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 모두에 공통적인, 즉 일반적인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 따라서 '개별적 사물의 공통된 모습'으로서의 이데아에 대한 규정은 보편자 개념을 통한 규정이고, 그러한 규정은 대상을 단순히 감각적 차원에서 한 번만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 차원에서 ㉡ 개념 체계의 좌표를 통해 파악하고 정리해 두려는 학문적 인식의 출발점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에서의 이데아, 즉 한 사물의 보편적 성질만 알면 그 사물에 대해 완전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개별적 사물에 대해 완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 사물의 이데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물만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개별적 특수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사실 플라톤의 초기 작품에 나오는 이데아에 대한 얕은 한 사물의 본질에 대한 학문적 차원에서의 얕은 제공해 줄 수 있어도, 그것의 고유성까지 꿰뚫는 완벽한 얕은 제공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플라톤은 그의 원숙기에 속하는 작품에서부터 개별자와 연관을 맺고 있는 이데아에 대해 주로 고찰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새로운 차원의 이데아론은 이데아와 현상계에 대한 비유적 표현 때문에 철학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오해를 받아 왔다.

사실 이데아는 영원불변한 실체이고, 현상계의 개체는 그것의 그림자라는 비유적 표현은 일반인들에게는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데아를 안다는 것은 하나의 대상을 학문적 인식 체계 속에서 그 대상이 속해 있는 유개념을 파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데아의 그림자인 개별자를 안다 함은 이데아라는 보편적 성질과 함께하고 있는 개별자 자체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얕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데아론에는 보편자에 대한 개념적 파악과 개별적 특수성에 대한 내용적 파악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이중적 시선이 작용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학문적 인식 체계에서 차지하는 진정한 의의를 알 수 있게 된다.

2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 ③ 용어나 명제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④ 개념의 이해와 관련하여 빚어질 수 있는 오해를 경계하고 있다.
- ⑤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1.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을 한다고 할 때, 강연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플라톤 철학의 위대성 - 플라톤의 업적을 중심으로
- ② 플라톤 철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이데아 개념을 중심으로
- ③ 플라톤 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이데아론을 중심으로
- ④ 사물 간의 관계에 대한 탐구 - 보편성과 개별성을 중심으로
- 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중심으로

22. <보기>는 플라톤의 저서 '향연'에 나오는 대목이다.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보기>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사랑에 관한 것들에 올바르게 도달하거나 인도자에 의해 인도될 수 있는 길은 다음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의 지상적 아름다움에서 출발하여 저편의 아름다움을 목표 삼아 사다리를 오르듯이 끊임없이 한 계단씩 올라가는, 다시 말해, 하나의 아름다운 육체에서 출발하여 두 개의 아름다운 육체로, 두 개의 아름다운 육체에서 모든 아름다운 육체로, 아름다운 육체에서 아름다운 자기 함양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자기 함양의 노력에서 아름다운 인식으로, 그리하여 그러한 인식들로부터 저 높은 단계의 인식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인식은 피안의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인식이며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것 자체를 직관하는 것입니다.

- ① 보편자로서의 이데아와 그것의 그림자인 개별자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
- ②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함양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군.
- ③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개념을 통해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이 지상적인 것이 아니라 천상적인 것임을 깨닫게 해 주는 진술이야.
- ④ 이데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인도자의 도움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군.
- ⑤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사랑보다는 정신적이고 숭고한 사랑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라는 점을 말하고 있어.

23. 위 글로 보아 ㉠과 ㉡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점]

- ① ㉠은 ㉡의 구성 요소이다.
- ② ㉠은 ㉡의 전제이다.
- ③ ㉡은 ㉠의 수단이다.
- ④ ㉡은 ㉠의 원인이다.
- ⑤ ㉡은 ㉠을 일반화한 것이다.

◆ 01 수능 23~27번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자(告子) 말하기를, "성품은 웅덩이에 고인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터놓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놓으면 서쪽으로 흐를 것이니, 사람의 성품이 착하나 그렇지 않으나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은 마치 물의 동서(東西)를 구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에 맹자(孟子) 말하기를, "물은 진실로 동서를 구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위와 아래의 구분도 없는가? 사람의 성품이 착하다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름과 같으니, 착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아래로 흐르지 않는 물도 없는 것이다. 이제 물을 쳐 올리면 머리 위로 튕 수도 있고, 물길을 막아 거스르게 하면 산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그 형세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다. 사람이 때로 나쁘게 될지라도 그 성품은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나)

소크라테스: 자네 말은 이런 것이지. 재산, 권력, 건강, 영예, 그리고 용기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쓰일 때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

제 자: 그것도 그렇군요.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유용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쓰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을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 자: 아니요, 아무 소용도 없겠지요.

소크라테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사람은 유용한 것을 가지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제 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나 ㉓그저 사용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 올바른 사용법과 그릇된 사용법이 있을 테니까. 만약 목수가 연장을 잘못 쓴다면 재료를 버리게 되니 쓰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아닌가?

제 자: 그러면 목수가 연장을 올바르게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 목수가 톱이나 도끼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악사가 연주를 잘하고, 조각가가 조각을 잘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 자기 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닐까?

제 자: 바로 그렇군요, 옳은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먼저 말한 재산이라든가 권력, 건강, 영예, 용기 따위도 그것이 있지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참된 지식에 의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만 선한 것이며, 만약 그것을 무지(無知)가 지배한다면 오히려 나쁘지 않을까?

23. (가)와 (나)의 공통적인 말하기 방식은?

- ① 상대방의 인품을 거론하고 있다.
- ② 상대방과의 논쟁을 회피하고 있다.
- ③ 비유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상황 논리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주장을 입의로 해석하여 말하고 있다.

24. (가)의 내용을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자: 웅덩이에 고인 물 → 본디 악한 성품
- ② 고자: 동, 서를 구분할 수 없는 물 →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없는 성품
- ③ 맹자: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 → 본디 착한 성품
- ④ 맹자: 아래에서 위로 거스르는 물 → 때로 나쁘게 되는 성품
- ⑤ 고자·맹자: 물 → 인간의 성품

25. (나)에서 소크라테스가 제자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 ① 현실 참여의 방법
- ② 바람직한 토론 자세
- ③ 무지가 지배하는 이유
- ④ 세속적 행복을 위한 덕목
- ⑤ 참된 지식의 올바른 사용

26. (나)의 소크라테스의 견해에 따라 대중 음악을 감상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중 음악은 스승과 함께 들어야 해.
- ② 대중 음악은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해.
- ③ 대중 음악은 이론을 알고 들을 때 더 좋아.
- ④ 대중 음악은 여럿이 같이 들을 때 흥이 나.
- ⑤ 대중 음악은 고전 음악과 늘 함께 들어야 해.

27. <보기>는 사전의 뜻풀이이다. ㉓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그저 ㉓ ㉔번함없이 이제까지. ㉕비가 그저 내리고 있다.
 ㉖(‘그러나’, ‘그러하다’ 따위와 함께 쓰여) 별로 신기한 일 없이. ㉗요새는 그저 그렇습니다. ㉘특별한 목적이거나 이유 없이. ㉙그저 한번 해본 말이다. ㉚(남을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뜻으로) 아닌 게 아니라 과연. ㉛내 그저 그럴 줄 알았지. ㉜공짜로. → 거저³. (방언).

- ① ㉓ ② ㉔ ③ ㉕ ④ ㉖ ⑤ ㉗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잃어버린 자기 반쪽을 찾아다니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은 자기 반쪽이나 온전함을 되찾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발이나 손이 병들었을 때 심지어 잘라 버리는 것도 참아 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혹시 달리 생각하나요?” 디오티마가 말했네.

“전혀 아닙니다. 디오티마 님.” 내가 말했네.

(나) “그럼 그냥 간단히, 사람들은 좋은 것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거기에 ‘갖게 되기를’이라는 말을 덧붙여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늘 갖게 되기를’이라 해야 하지요?”

“그것도 그래야죠.”

“그럼 결국 사랑은 좋은 것을 늘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다) “그게 사랑이라면,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모르겠네요.”

“몸에서든 영혼에서든 아름다운 것 안에서 출산하려 하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통 이해 못하겠네요.”

“더 분명히 말하죠. 모든 사람은 몸도 영혼도 임신한 상태랍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출산하고픈 갈망이 생기지요. 그런데 임신과 출산은 조화롭지 않은 것 안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추한 것 안에서는 안 되고 아름다운 것 안에서만 할 수 있지요. (중략) 사실 단지 아름다운 것이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면 뭐가요?”

“아름다운 것 안에서 하는 출산이 사랑의 대상이죠.”

“일단은, 좋습니다.”

(라) “아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 출산이 왜 사랑의 대상일까요? 출산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가사자(可死者)가 가진 불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합의한 대로 사랑이 좋은 것을 늘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만이 아니라 불사도 갈망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사랑의 대상이 불사라는 것도 이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지요.”

이 모든 것들을 디오티마가 가르쳐 주었네.

(마) 한번은 그녀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네.

“이런 사랑과 갈망이 생기는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짐승들이 새끼를 갖고 싶어할 때면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 처하는지 봤지요? 서로 함께 쉬일 때에도, 또 태어난 새끼를 기를 때에도 사랑에 애타는 상태가 됩니다. 새끼들을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 않지요. 인간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다 쳐도, 짐승이 그토록 사랑에 애타는 상태가 되는 까닭이 뭘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합의한 것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당신이 믿고 있는 게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가사자는 할 수 있는 한

늘 있기를, 즉 불사를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연속 생성 과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것 대신 다른 새로운 것을 늘 남기는 과정 말입니다. 사실 이걸 동물 하나하나가 살아 있다고, 또 같은 것이라고 불리는 동안에도 그렇죠. 예컨대 사람은 갓난애 때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같은 사람이라고 불리지요.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같을 때가 없고 늘 새로운 사람이 되며, 머리카락, 살, 뼈, 피 같은 것들은, 아니 몸 전체가 계속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영혼의 경우도, 그러니까 습관, 성격, 믿음, 욕망, 쾌락, 고통, 두려움 등도 이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사람 안에 늘 같은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생겨나고 어떤 것들은 소멸합니다. 이것들보다 훨씬 더 특이한 일은 앎의 경우도 그렇다는 겁니다. 앎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생겨나고 어떤 것들은 소멸하지요. 그래서 심지어 앎의 관점에서조차도 사람이 같은 사람일 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앎 하나하나도 같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습을 하는 것도 앎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 때문이거든요. 복습은 떠나가는 기억 대신 새로운 기억을 다시 만들어 넣어 줌으로써 같은 앎으로 보이게 하지요. 사실 모든 가사적인 것이 이런 방식으로 보존됩니다. 신적인 것처럼 모든 면에서 늘 같은 것으로 있음으로써 보존되는 게 아니라, 늙어 가고 떠나가는 대신에 자기와 닮은 새로운 것을 남겨 둌으로써 보존되지요. 이런 장치를 통해 가사적인 것은 불완전한 자신의 한계를 넘어 불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 플라톤, 향연 -

5. (가)~(마)에 나타난 디오티마의 논의를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가): '자기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사랑의 대상임을 사례를 들어 논증하고 있다.
- ② (나): 한정 어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사랑의 대상을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의 지속적 소유'로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다): '좋은 것' 대신 '아름다운 것'으로 논의 대상을 바꾸는 것에 대해 정당화하는 논의를 펼쳐 동의를 얻은 후, 사랑을 아름다운 것 안에서의 출산과 연결하고 있다.
- ④ (라): 가사자의 불사 추구라는 논점이 앞서 합의한 것으로부터 도출됨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출산이 사랑의 대상인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⑤ (마): 연속 생성의 사례들을 들면서 출산을 통해 불사를 추구하는 가사자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

6. (마)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사람의 몸은 평생 동안 계속 변한다.
- ② 사람과 신은 존재 보존 방식이 다르다.
- ③ 사람과 짐승 모두 출산과 양육에 열의를 보인다.
- ④ 기억은 사람의 앎을 동일한 것으로 보존해 준다.
- ⑤ 동물은 연속 생성을 통해 계속 살아 있고자 한다.

7. 사랑에 관해 <보기>와 디오티마가 공통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보 기>

본래 인간은 지금의 인간 둘이 붙어 있는 이중 인간이었고, 성(性)도 '남-남, 여-여, 남-여'라는 세 조합이 있었다. 그들의 힘이 강성해 신들에게 위협이 되자 제우스는 인간을 절반으로 잘랐다. 그런데 절반으로 잘린 인간들은 나머지 반쪽을 찾아 한 몸으로 돌아가기만 갈망하여 모든 일을 작파하다 멸종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제우스는 인간이 상대방과 몸을 합쳐 자식을 낳거나 결합의 만족을 얻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고 이것이 오늘날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때 사랑은 잃어버린 반쪽, 즉 애초의 자기 것을 찾아 한 몸을 이루려는 욕망이며, 그렇게 온전한 옛 자기를 되찾게 될 때 행복이 이루어진다.

- ① 자신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
- ② 불완전에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 ③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 ④ 만남의 목적보다 만남 자체를 추구하는 것
- ⑤ 육체적 결합보다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것

◆ 06 MDEET 언어추론 11~13번

[11~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서로 같지 않은 두 부분으로 나뉜 선분 하나를 생각해 보세. 그 두 부분을 각각 ‘눈에 보이는 부류’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라 부르기로 하고, 이 두 부분을 다시 같은 비율로 나누어 보게나. 그렇게 하면 그것들의 명확성과 불명확성의 정도에 따라 ‘눈에 보이는 부류’ 안에서 다시 나뉜 한 부분으로 영상(映像)이 자네에게 주어질 걸세. 이때 내가 말하는 영상이란 그림자, 물에 비친 상(像), 거울의 표면에 이루어진 상 같은 것일세.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류’ 안에서 나뉜 나머지 한 부분은 이 영상이 담고 있는 실제의 것, 즉 우리 주변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인공적인 일체의 것으로 간주하거.”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애초의 두 부분이 진리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나뉘었고, 이때 ‘담은 것’과 ‘담음의 대상’의 관계는 ‘의견의 대상’과 ‘인식의 대상’의 관계와 같다고 말하고 싶겠지?”

“그리고 싶고 말고요.”

“㉠ 그러면 이번에는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게.”

“어떻게 말씀입니까?”

“그건 이런 식으로일세. 이 부류의 한 부분에서는 혼(魂, psyche)이 앞서 ‘담음의 대상’이었던 것을 이번에는 ‘담은 것’으로 다루어, 가정에서 원리(arche)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론으로 나아가는 식으로 탐구하게 되네. 반면에 나머지 한 부분에서는 ‘무가정(無假定)의 원리’로 나아가는데 이는 가정에서 나아가 앞부분의 ‘담은 것’도 거치지 않고 이데아를 이용하여 탐구를 진행한다는 말이지.”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네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니 다시 말해 볼세. 나는 자네가 이를테면 이 점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네. 즉 기하학이나 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홀수와 짝수, 도형 같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말일세. 이것들은 누구에게나 분명한 것들로서 자기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어떠한 설명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이지.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하여 나머지 것들을 거쳐서는, 애초에 탐구를 시작한 목표에 이르러 모순되지 않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도 말일세.”

“물론 그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이것도 알고 있을 걸세. 즉 기하학이나 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도형을 이용하여 논의를 하지만, 그들이 정작 생각하는 것은 이런 도형이 아니라 그것이 담아 보이는 원래의 것에 관해서이고, 그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정사각형 자체나 대각선 자체 때문이지 결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일세. 그러나 이것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에 속하긴 하지만 이때 혼은 불가피하게 가정을 이용하게 되고 원리로는 나아가지 못하는데, 이는 혼이 가정에서 벗어나 더 높이 오를 수가 없기 때문이라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의 나머지 한 부분은 이성(logos) 자체가 변증술적 논변의 힘에 의해 파악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때의 이성은 가정을 원리로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기변(基盤, hypothesis)으로 대할 뿐이라네. 다시 말해서

‘무가정의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원리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나 출발점으로 대할 뿐이라는 말일세. 이때 이성은 그 어떤 감각적인 것도 이용하지 않고 이데아만을 이용하며 또 이데아에서 끝을 맺게 마련이지.”

“이해는 하겠습니까만, 충분히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기하학이나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지적 상태를 ‘추론적 사고’라 일컫지 ‘직관’이라 일컫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네는 내 말뜻을 아주 충분히 납득했네. 그러면 넷으로 나뉜 각 부분에 대응하여 혼 안에서 다음 네 가지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세나. 말하자면 최상위의 것에 대해서는 ‘직관(noesis)’을, 둘째 것에 대해서는 ‘추론적 사고(dianoia)’를, 셋째 것에 대해서는 ‘확신(pistis)’을, 그리고 가장 하위의 것에 대해서는 ‘상상(eikasia)’을 배당하게나. 그리고 이것들을, 그 대상들이 진리에 관여하는 만큼 명확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비례에 따라 차례대로 배열하게나.”

- 플라톤, 국가 -

11. 위 글로 미루어 <보기>에서 올바른 진술을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ㄱ. 호수에 비친 달은 ‘상상’의 대상이다.
 - ㄴ. 내가 앉아 있는 의자는 ‘확신’의 대상이다.
 - ㄷ. 열매 속의 씨앗은 ‘추론적 사고’의 대상이다.
 - ㄹ. 칠필에 그려진 직선은 ‘직관’의 대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2. 위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선분’이 나뉜 기준은 명확성 혹은 진리에 관여하는 정도이다.
- ② 존재하는 것들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누는 이번에는 가치의 서열이 개재되어 있다.
- ③ 존재하는 것들의 단계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일대일 대응 관계에 있다.
- ④ 기하학이나 산술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어떤 감각적인 것도 이용하지 않고 도형이나 수 자체를 누구나 안다고 가정하고서 탐구한다.
- ⑤ ‘눈에 보이는 부류’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에 대해 갖는 관계는, ‘의견의 대상’이 ‘인식의 대상’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다.

13. ㉠에 대한 대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추론적 사고’와 ‘직관’이 갈리는 지점에서 나뉜다.
- ② 이데아만을 이용하여 탐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나뉜다.
- ③ 변증술적 논변의 힘에 의해 파악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구별하여 나뉜다.
- ④ 눈에 보이는 도형을 탐구하느냐, 이 도형이 담아 보이는 사물을 탐구하느냐를 기준으로 나뉜다.
- ⑤ 가정에서 출발하여 결론으로 나아가는 부분과 가정에서 출발하여 ‘무가정의 것’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구별하여 나뉜다.